

# “춘천 · 원주서도 환자들이 찾아온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오병돈 노브스튜디오



응급실을 강화하고 진료영역을 전문화하면서 내원객이 부쩍 늘어난 홍천아산병원 관계자들이 최종수(왼쪽 넷째) 병원장을 중심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 **홍천아산병원**: 1989년 12월 1일 개원. 지하 1층, 지상 4층.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영상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과 진료. 145병상(2병동 34, 3병동 51, 5병동 53, 중환자실 7) 운영중. 2014년 월평균 외래환자 8,364명, 입원환자 4,189명. 직원 137명.

아산재단 산하에는 8개 지방병원이 있는데, 이번 호부터 각 지방병원을 소개하는 칼럼을 연재합니다. 첫 번째로 홍천아산병원을 찾았습니다.-편집자 주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전준식(46) 씨는 얼마 전부터 왼쪽 팔꿈치에서 작지 않은 덩어리가 만져졌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근처

병원에 갔다가 지방종 진단을 받았다. 제거 수술이 필요했는데, 그는 집에서 멀지 않은 원주의 큰 병원들을 마다하고 일부러 1시간 거리의 홍천아산병원으로 찾아왔다. 어머니(남제우 · 71)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위암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적이 있는데, 그때의 주치의가 지금의 최



홍천아산병원의 1989년 개원 당시 모습과 현재 전경



중수(55) 홍천아산병원장이었다.

“원장님이 계시는 홍천아산병원에 오면 집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다”는 어머니의 말에 “수술도 신속하게 잘 됐고,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친절한지 모른다. 홍천으로 오길 정말 잘 했다”며 아들도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쳤다.

홍천아산병원이 최근 들어 부쩍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늘어난 환자 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래환자(월평균 8,364명)뿐 아니라 입원환자(월평균 4,189명)도 증가해서 병상을 145병상으로 늘렸고, 병원의 매출과 수익이 덩달아 증가했으며, 직원들 사이에도 활기가 넘친다. 에너지 넘치는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 병원장이 응급실을 지키다

홍천아산병원은 1989년 12월 1일, 아산재단 산하의 정읍·보성·보령·영덕·서울·금강아산병원에 이어 7번째로 문을 열었다. 100병상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병원이었다. 아산재단이 외진 농어촌에 병원을 세운 것은 의료취약 지역 주민들도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게 하여 질병과 가난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을 찾는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홍천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주변이 온통 논밭이었을 때 그 한가운데 우뚝 선 현대식 병원은 지역 주민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병원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부모를 따라 병원에 왔다가 엘리베이터를 처음 본 아이들의 입소문을 타고 동네 꼬마들이 병원을 놀이터 삼아 드나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던 홍천아산병원은 교통이

발달하면서 환자가 줄기 시작했다. 주변 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늘어나자 젊은이들은 좀 더 나은 생활을 찾아 대도시로 떠났고, 춘천과 원주 등의 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늘어났다. 입원환자가 줄면서 병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누적 적자는 늘어만 갔다.

전기는 최종수 원장이 부임하면서 찾아왔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서 강릉아산병원에서 암센터 소장과 부원장을 역임한 최 원장은 2011년 3월 1일 홍천아산병원의 제5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최 원장은 출근 첫날부터 응급실에 주목했다.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서는 인턴 2명이 야간에 당직근무를 했다. 인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환자가 야간에 응급실을 찾았을 경우 선배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듯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2~3일 대기하는 것은 인턴이 아니라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인데, 이런 기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걸 안 홍천의 응급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떠났다.

최 원장의 파격적인 응급실 야간당직은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 ‘홍천아산병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응급실 당직을 선다’는 소문은 금세 지역사회에 퍼졌다. 피고가 법정에서 설 때 기대하는 건 법관의 상식적인 판결이다. 독자가 신문을 읽을 때 바라는 건 기자의 균형 잡힌 정보다. 환자가 병원을 찾는 이유는 바로 양질의 진료다.

병원장이 밤에도 응급실을 지키자 우선 119 구급대원들이 고마워했다. 시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병원장이 환자를 우선적



로 생각한다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자 홍천은 물론이고 인접한 인제와 양평, 그리고 종합병원이 있는 원주와 춘천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다. 환자들이 몰리자 직원들도 내원객의 믿음에 부응하고 생기 넘치는 병원을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땀뿜 뭉쳤다.

## 개선된 이미지, 높아진 자신감

지금 홍천아산병원에는 원장실도, 관리부장실도 따로 없다. 부득이하게 외부 손님을 만날 때는 2층 수술실 옆에 자그마하게 마련한 접견실을 병원장이나 관리부장 등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원장실을 없앤 것 또한 병실 부족 사태가 발생해서였다.

입원환자가 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자 최 원장 부임 4개월 뒤인 2011년 7월 110병상에서 118병상으로, 이듬해에는 다시 132병상으로, 그리고 2013년 8월 1일에는 지금의 145병상까지 늘렸다. 145병상으로 확대할 때는 병원의 원장실과 관리 부장실을 없애고 그 자리에 병실을 만들었다. 특히 이때 만든 병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12인실 병실이였다. 이 병실은 보호자 없이 두 명의 간병인을 고용해 운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재단의 설립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응급실을 강화하고, 병상을 늘린 데다가 내과  
와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등의 진료영역을 더욱  
전문화한 홍천아산병원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손익 구조가 개선되면서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누적  
손익도 금년 말에는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  
말이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매년 늘고 있다.

직원들의 자신감과 자긍심도 높아졌다. 홍천아산병원 개원 맨  
버인 이현숙(50) 총무계장은 “나는 홍천 토박이인데, 1984년 3월  
인제아산병원(1996년 6월 1일 홍천아산병원과 통합)에 입사했  
다가 우리 병원이 문을 열면서 옮겨왔다. 동네사람들을 만나면 우  
리 병원이 한결 밝아지고 친절해졌다는 말을 많이 해서 병원에  
다니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천아산병원 개원 때부터 근무 중  
인 변금순 5병동 수간호사, 이상미  
물리치료실 계장, 이현숙 총무계장  
(위부터)

역시 개원 멤버인 변금순(49) 5병동 수간호사는 “1988년 2월부터 인제아산병원에서 일하다가 홍천으로 왔다. 최종수 원장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응급실 수간호사였다. 원장님 덕택에 무척 바빠졌지만(웃음) 병원 이미지가 훨씬 좋아져서 힘들어도 기분이 좋다. 특히 원장님은 아침에 회진을 돌면서 간호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서 간호사들이 원장님을 무척 좋아한다”고 달라진 병원 분위기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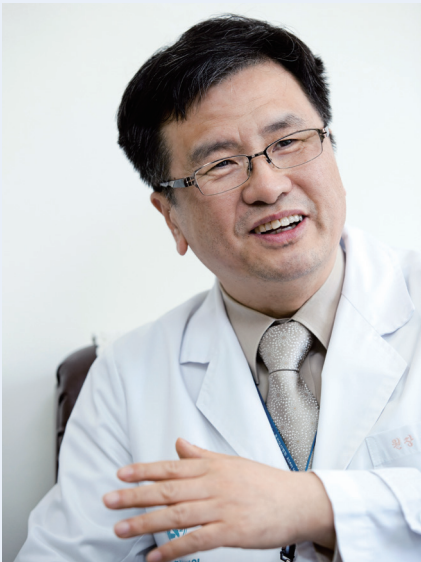
이상미(48) 물리치료실 계장은 “나는 우리 병원이 문을 열 때 입사했을 뿐 아니라 우리 병원이 첫 직장이다. 홍천고등학교에 다니며 내게 치료 받은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되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온 적이 있다. 그의 인사를 받으며 병원에 근무하는 게 자랑스러웠다”며 지난날을 떠올렸다. 세 명의 개원 멤버는 모두 처녀 때 근무를 시작해 병원에 다니면서 결혼했다.

강정희(52) 간호과장은 “나도 우리 병원 개원 멤버인데, 나는 특히 아산간학생 출신이어서 아산재단에 대한 자긍심이 남다르다. 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덜어준 아산재단이 정말 고맙다. 우리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과 금강아산병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1월부터 홍천에서 일하고 있는 홍성삼(53) 관리부장은 “우리 병원은 현재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가 응급실에서 대기할 정도로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다. 휴게공간도 없을 정도다. 수요 변화에 적해 병원 증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재단의 지방병원들은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라 지역 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홍천아산병원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새터민 및 보훈가족 지원, 저소득가정 반찬봉사, 겨울나기 물품 후원, 연탄배달 봉사, 새내기 중고생 교복지원,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을 진행했다. ‘환자 중심, 지역민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홍천아산병원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병원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 “내가 변해야 병원이 바뀐다”



2011년 3월 1일 부임 직후부터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는 최종수 병원장

“아이고, 우리 병원에 관심을 가져주는 건 고맙지만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영 불편한데...”

최종수(55) 병원장은 아산재단 내외부에서 주목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짧은 머리칼을 손질하지 않아 드문드문 빠죽 솟아나왔고, 오전인데도 코밑과 턱에 수염이 거뭇한 모습이였다. 외모에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최 원장에게 궁금한 점을 들었다.

### -요즘도 응급실 당직을 서시나.

“계속 하고 있다. 관사가 바로 옆, 10m 거리에 있어서 출퇴근에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 병원에 오면 언제나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환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다. 설이나 추석, 크리스마스 같은 휴일에는 내가 외래진료를 담당한다. 지난번 3일간의 설 연휴 때는 내가 이틀 응급실에 있었고, 하루는 진료부장

이 책임졌다. 요즘은 각 진료과의 전문의들도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다.”

### -당직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지.

“내가 홍천에 있는 한 계속할 생각이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처음에 좀 힘들어한 직원들도 환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긍심이 높아진 걸로 안다.”

### -응급실 당직을 맡은 이유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첫째 이유였다. 그리고 내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병원은 환자가 줄어서 2병동을 폐쇄하는 등 약간 침체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교통발달과 지역인구 축소·고령화 등 외부에서만 찾고 내부 진단이 없었다. 나는 아산재단의 도전정신은 나 자신부터 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뀌어야 병원이 변하고, 그 래야 환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내 믿음 이었다.”

### -병원장실도 없었는데.

“원장실이 뭐 중요한가. 우리 병원은 ‘찾아가는 결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결재가 필요한 사람들이 결재권자 방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제도다 (웃음). 강릉아산병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할 때도 방이 따로 있었지만, 그때도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돌아다녔다. 혹시 휴식이 필요할 땐 응급실이나 투석실에 간다. 환자들은 의사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해하기 때문이다.”

### -토요일에도 근무하시나.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풀로 근무하고 있다.”

무하고 있다.”

곁에 있던 박기현(49) 총무과장이 “원장님은 1주일에 44시간 일할 뿐 아니라 토요일 오후에는 지역의 요양원으로 진료를 나가신다”고 거들었다. 현재 홍천아산병원은 11곳의 요양원과 촉탁의 협약을 맺었는데, 이 중 3곳을 최 원장이 맡고 있다는 것이다.

### -2015년도 병원 운영 계획은.

“우리 병원은 현재 145병상인데, 지금의 규모에서는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 이제 우리 병원의 내부 의식이 변했으니가 하드웨어가 바뀔 때라고 본다. 병원 증축과 진료과목 확장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인 것 같다. 2019년 개원 30주년 기념식은 증축한 신관에서 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홍천아산병원 근무가 매우 만족스럽고, 환자와 직원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최종수 병원장은 1995년부터 서울 및 강릉아산병원에서 진료해왔다. 2011년 홍천아산병원 부임 뒤에는 결혼 전 고등학교 가정 교사였던 아내(김민아·53)와 관사에서 지내고 있다.

1남1녀의 자녀들은 유학 중인데, 딸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아들은 일본 게이오대학 경제학과 2학년이다. 최종수 병원장은 골프는 체질에 맞지 않아 좋아하지 않고, 수영으로 건강관리를 한다. 홍천에 부임한 뒤에는 방수 팩에 전화기를 넣고 수영장에 가보았으나 전화벨이 수시로 울려서 요즘은 수영을 포기한 상태다. 📞